

2022 제12회 서울미래연극제 2차 연습실 심사 총평

제12회 미래연극제 심사위원단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총 10개의 지원팀에 대한 2차 심사를 끝마쳤습니다. 이전 심사와 달리 심사위원단의 연습실 직접 방문 방식을 채택한 이번 2차 심사는 7월 18일(1팀 방문), 21일(3팀 방문), 22일(3팀 방문), 24일(3팀 방문) 총 4일 간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팀 당 약 30분간의 실연 및 약 40분간의 창작진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인 피드백과 함께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심사자는 지원서와 대본 등 미리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연 내용의 구성과 표현을 평가하였습니다(심사자 1인은 제척 사유로 1팀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 10팀 중 5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자 간 의견 차이로 인해 긴 토론이 이어졌지만 최종적으로는 합산 결과에 대한 순위 변동 없이 최초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2차 심사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창작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연과 인터뷰 진행 시간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긴 시간 준비해온 작품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에 1시간 남짓은 여전히 모자란 시간이었습니다. 선정 결과를 떠나, 모든 지원팀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심사 기간 중 함께 나누었던 작품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고대합니다. 아울러 좀 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평가방식 개발에 애쓰고 계신 서울연극협회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을, 극장에서 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7월 29일

심사위원 김민경, 문삼화, 설유진, 윤서현